

보도	2024.2.6.(화) 석간	배포	2024.2.5.(월)
담당부서	분쟁조정1국 분쟁조정기획팀	책임자	팀 장 김동하 (02-3145-5212)
		담당자	수석조사역 김상희 (02-3145-5216) 조사역 윤호연 (02-3145-5217)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화재보험 보상 및 가입 관련 -

주요 내용

- ◆ 금융감독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분쟁내용 및 처리결과를 금융 권역별로 분석하여 금융소비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음
- 겨울철에는 화재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재보험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
-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화재에 취약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위험도 큰 편이므로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어 화재위험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내용]

- ① 주택을 제외한 일반, 공장 화재보험에서는 가스 폭발 사고 등 폭발·파열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② 화재보험 대상 보험목적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적과 주소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주소변경 사실은 반드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손해액 산정시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경과연수 등을 반영하여 감가상각될 수 있습니다.
- ④ 목적물의 실제 가치보다 낮게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한 경우 가입한 비율만큼의 손해를 보상(비례보상)합니다.
- ⑤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더라도 임차인이 해당건물의 보험료를 부담하였다면 보험사는 임차인에게 구상하지 않습니다.

※ 본 보도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는 개별 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주택을 제외한 일반·공장 화재보험에서는 가스 폭발 사고 등 폭발·파열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분쟁 사례]

- 식당 사장님 김○○은 LPG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로 내부 집기, 비품이 훼손되어 5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나, 다행히 화재로 번지지 않는
- 본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손해보상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화재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
- ➔ 화재는 열 또는 빛을 수반하는 연소현상인 불로 인한 재앙을 의미하는데, LPG 가스 폭발*은 불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급격한 산화반응으로서 화재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이 불가

* 약관에서는 폭발, 파열을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한다'고 규정

화재보험 보상대상 여부



< 소비자 유의사항 >

- ① 일반화재, 공장화재 보험의 화재담보에서는 폭발, 파열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화재 보험은 폭발, 파열도 보상)
- ② 보험사는 화재담보와 폭발·파열 담보를 구분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가입자는 보장범위를 선택하여 추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TIP!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 등은 「구내 폭발, 파열 손해 특약」 등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2-1 화재보험 대상 보험목적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적과 주소 등이 청약서, 보험증권에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분쟁 사례]

- 정육 도매업 사장님 백○○은 매장 밖 창고에 발생한 화재로 1,000만원 상당의 원자재가 소실되는 손해를 입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해당 창고가 보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
 - 보험증권에는 보험목적물이 '서울시 영등포구 금소대로 38 00한우, 건물 1층, 면적 100m²'로 기재되었으나, 창고는 증권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주소지에 30m² 면적의 컨테이너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
- ➔ 약관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 발생한 화재손해를 보상하는데, 지번, 면적 등에 비추어 해당창고는 보험목적물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곤란

보장대상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비자 유의사항 >

- ① 청약서에 목적물의 지번·면적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계약체결 후 교부받은 증권의 기재가 정확한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특히, 주건물과 별도인 부속건물, 창고 등의 경우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보장대상임을 가급적 따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② 부속건물이나 창고 등을 포함하기로 하고 설계사에 구두로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증권에 기재되지 않으면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2-2 보험목적물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주소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분쟁 사례]

- 의류 수출업체 사장님 김○○은 화재가 발생하여 창고에 보관중이던 의류 재고자산 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어 보험금을 청구
 - 의류재고가 수시로 반출입 되는 사정을 감안하여 '창고(소재지 A) 내 수용된 의류재고'를 보험목적물로 지정(총괄보험)하였으나, 다른 창고(소재지 B)로 이사하면서 목적물 소재지를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음
 - 보험사는 이사 이후 창고에 보관된 의류재고는 보험가입시 보상하기로 약정한 보험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
- ➔ 이러한 총괄보험의 경우 목적물 소재지에서 반출되면 해당물건은 보험의 목적에서 제외되므로, 소재지 변경 통지 없이 이사한 곳에서 발생한 화재손해는 보상대상으로 보기 곤란

소재지 통지를 누락한 경우



< 소비자 유의사항 >

- ① 창고 등 일정한 장소내에서 수시로 물건의 반출입이 예정된 경우 일정한 소재지 내 물건을 보장대상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② 이러한 형태의 보험계약에서는 보장대상 물건이 지정된 소재지를 벗어나면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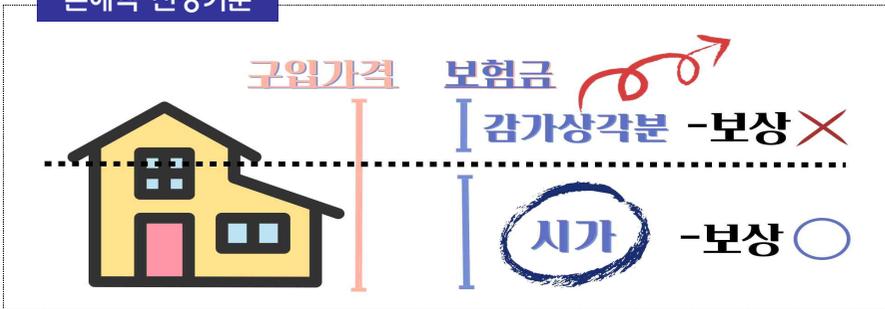
TIP! 사업장 이전 등으로 목적물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그리고 지체없이 보험사에 주소 이전 사실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손해액 산정시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경과년수 등을 반영하여 감가상각될 수 있습니다

[분쟁 사례]

- 펜션을 운영하는 사장님 정○○은 펜션 건물이 화재로 전소되어, 신축비용 견적금액 10억원의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보험사는 경과년수 15년을 감안하여 감가상각분을 공제하고 8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회신
- ➔ 보험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사고 당시의 시가이며, 시가 산정시 목적물의 내구년한, 경과년수 등을 고려한 감가상각을 반영하므로 신축비용 전액 보상요구는 수용이 어려움

손해액 산정기준



< 소비자 유의사항 >

- ① 화재보험은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사고 당시의 실제손해인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 ② 고정자산의 경우 신축비용(제조달가액)에서 감가상각을 공제하며, 감가상각시 내구년한, 경과년수 등을 반영합니다.
- 일부 파손에 따른 수리비의 경우에도 감가상각이 적용됩니다.

TIP! 시가가 아닌 **신가로 보상하기로 하는 특약** (건물 복구비용 지원 특약 등)에 가입하는 경우 신축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4 목적물의 실제 가치보다 낮게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한 경우 가입한 비율 만큼의 손해를 보상(비례보상)합니다

[분쟁 사례]

-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장님 임○○은 낙뢰로 주유기가 파손되어 수리비용 4백만원의 손해를 입었고, 해당 손해액 전부를 보험금으로 청구
 - 주유기의 시가(보험가액)는 4천만원이었고, 보험가입시 보험가입금액을 1천만원으로 설정하였으나, 계약자는 실제 손해가 보험가입금액 이내라면서 손해액 전부의 보상을 주장(벼락도 화재에 포함)
- ➔ 해당계약은 목적물 시가(보험가액)의 일부만을 보험에 가입한 일부보험이므로, 보험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보험가입비율에 비례한 손해액임
 - 화재보험은 약관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text{약관}] \text{ 손해액} \times \frac{\text{보험가입금액}}{\text{보험가액}}, \quad [\text{사례적용}] \quad 4\text{백만원} \times \frac{1\text{천만원}}{4\text{천만원}} = 1\text{백만원}$$

< 소비자 유의사항 >

- 보험가입시 **보험가입금액**은 목적물의 가치(보험가액)에 맞게 적절히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실제 가치를 초과하여 가입한 경우(초과보험) 보험료 부담은 커지나, 지급 보험금이 늘지는 **않습니다.** (실제 손해액 한도)
 - 반면, 실제 가치보다 적은 금액으로 가입한 경우(일부보험) 비례보상원칙에 따라 실제 손해액의 일부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TIP! 「**실손보상형 특약**」 가입시 **약정한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는 가입비율과 관계없이 손해액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설정에 따른 예시>

구분	보험가액 (목적물의 가치)	보험가입금액 (최대 지급가능금액)	손해액	지급 보험금
비례 보상 형	10억	12억	6억	6억
		10억		6억
		5억		3억 ^(비)
실손보상형(특약)	10억	5억	6억	5억 ^(실)

^(비) 손해액 6억원 X 보험가입금액 5억원 / 보험가액 10억원, ^(실) Min[보험가입금액, 손해액]

5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임차인이 해당 건물의 보험료를 부담하였다면 보험사는 임차인에게 구상하지 않습니다

[분쟁 사례]

- 상가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중인 사장님 박○○은 조리 중 가스불을 끄지않아 임차건물 일부를 태웠고, 2천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
 - 임차인이 직접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임차인이 납부한 상가 관리비에는 해당 건물의 화재보험료가 포함
 - 해당 건물에 상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계약자로 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는데
 - 보험사는 건물 소유주에게 복구비용 손해를 보상한 후 손해발생의 책임이 있는 임차인에게 해당 비용을 구상(보험자대위)
- ➔ 임차인이 관리비를 통해 해당 건물의 화재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보험사는 해당 임차인에게 구상청구 불가

화재보험료 부담 임차인에 대한 구상가능 여부



< 소비자 유의사항 >

- ① 건물 소유자에게 화재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목적물 훼손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급 보험금 범위 내에서 구상할 수 있습니다.
- ② 종래 법원은 임차인이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대위권 행사의 대상으로 판단,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구상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1다94141 판결 등)
- ③ 그러나, 계약의 실질관계에 비추어 보험의 이익을 받으려고 보험료를 납부한 임차인의 기대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 금감원은 약관 개정을 통해 '임차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임차인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대위권 포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21년 시행)

TIP! 임차인은 보험사로부터 구상을 청구받은 경우 **화재보험료 부담 사실을 증명하여 적극 항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fss.or.kr>)

- 보험의 목적(보험 목적물) :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
 - 화재보험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 시설, 집기·비품, 재고자산 등
 - 총괄보험의 경우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하며 보험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
- 보험가입금액 : 보험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
- 보험가액 : 재산보험에 있어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보험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초과보험 : 어떤 물건에 붙인 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이 그 물건의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보험
- 전부보험 :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설정한 보험
- 일부보험 : 어떤 물건에 붙인 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이 그 물건의 보험가액에 달하지 않은 보험
- 비례보상 원칙 : 일부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사의 부담은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의하여 정하여진다는 원칙

$$\text{지급보험금}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보험가입금액}}{\text{보험가액}}$$
- 실손보상형 특약 :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가액보다 낮게 설정한 경우에도 비례보상 방식이 아니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부(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를 보상하기로 하는 특별약관
- 신가보상 특약 : 보험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입은 실손해를 보상하는 대신 신품가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기로 하는 특별약관
- 보험자대위(구상) :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